



**KW-Leadership,
SE-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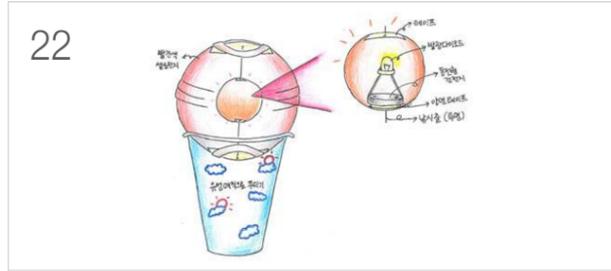
04
격려사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05
이임사
 윤혜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12대 회장

06
취임사
 임효숙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13대 회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KWSE 소식지

발행인 임효숙
 편집위원장 최은정
 편집위원 강현주, 김소희, 김지선, 서윤경, 성정식, 이우경
 사무국 김혜선, 민의정, 변애란, 송혜진, 장현정, 최한나
 발행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주소: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부설 나노융합기술원 E19 801호
 전화: 042-863-8310-8 팩스: 042-863-8313 E-mail: kwse@kwse.or.kr
 홈페이지: www.kwse.or.kr
 디자인 (주)시우컴퍼니 www.siwoocom.kr



07
연중계획
 2020년 KWSE 활동

08
사업소개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단체협력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10
제13대 임원진 및 위원회 소개
 교육학술위원회, 국제네트워크위원회, 기획운영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정보위원회, 정책위원회, 홍보편집위원회,
 총무단, 감사

18
인사이트∞
 당신의 스펙트럼을 넓혀줄 심층 인터뷰
 우미영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글 | 김지선, 김소희



22
스포츠라이트
 대한민국의 하늘을 책임지는 여성과학자들
 글 | 이우경

24
KWSE 특특 #톡스타그램 #달콤한티타임 #행복한동행
 KWSE와 만난 신진여성과학기술인들의 이야기
 이내윤, 서윤경, 정미경

26
KWSE人 세계속으로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
 Malinda Vania, Purnaning Tuwuh Triwigati

30
특별기고
 이제는 커뮤니티 시대
 글 | 강현주, 성정식



32
지부소식

33
KWSE NEWS

38
회원동정

39
2020 여성과학자 (KWSE-KWiSE) Webinar
 Bio-Health 분야의 KWSE와 KWiSE가 함께 학문의 열정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



이 우 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現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前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 前 한국복합재료학회 회장
- 前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단장

* 격려사

과학기술 인력의 저변 확대, 정보 및 지식교류를 위해 애쓰시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이우일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는 물론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 공헌을 위하여 과학기술 인력의 저변 확대, 정보 및 지식교류를 위해 애쓰시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올해는 임효숙 회장님께서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시게 되어 더욱 의의가 큼니다.

창립 27주년을 맞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과학기술인 단체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께서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제조업 뿐 아니라 공유경제의 확산, 오프라인의 급격한 온라인화 등 사회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는 다양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도구가 생기고 모든 사물과 인간이 연결되는 세상이 되면서 이전에는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성을 적극 활용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점이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역할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4차산업혁명이 전세계 공통의 과제라면, 인구절벽은 우리만이 맞고 있는 위기입니다. 이제 1.0 이하로 떨어진 출산율은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 인구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장 부족해질 산업인력 문제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과학기술계에 진출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여성도 과학기술계에 진출하려면 인식과 제도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이 5,000만원 이하 소형 연구과제에서는 40%인데 반하여 10억원 이상의 대형과제에서는 3.2%에 불과합니다. 남성 연구원은 과제당 평균 연구비 규모가 1억 6,600만원인데 반하여 여성은 평균 5,600만원에 그치는 등 연구 현장에서의 남녀 차이가 여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과연 여성 인재들을 키우고 능력에 걸맞은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또한, 역할 모델의 부재, 일-가정 양립 문제 등 외부적 요인으로 경력지체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 대응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우수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여성 인재의 배출과 성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킹,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중견 여성 과학기술인의 지속적 성장과 자리매김,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은퇴 후 활동을 위한 정책 도출 등 다양한 사업들은 모두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위해 중요한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지금처럼 핵심적 역할을 해주신다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국과총도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혜 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12대 회장

- 現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現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원
- 現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 위원
- 現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위원회 위원
- 前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 이임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울타리 안에서 훌륭한 분들을 만나고 함께해 온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혜은입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12대 회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지난 2년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하시는 선후배 회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제27회 총회에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국제협력20년사를 헌정하였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처음 INWES의 초청으로 국제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APNN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19 MAPWIST & YWS Camp 주제인 'Looking back for a great leap forward'가 말해주는 것처럼, APNN의 창립을 주도하고 선도적인 활동을 해 온 KWSE는 지난 10년간 아시아·태평양 국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을 선도하고 국제지표개발성과를 분석, APNN 국가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2019년 11월에 개최한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끄는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터키, 필리핀, 한국 등 총 12개국 141명이 참석한 본 행사는 한-아세안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반 성장에 기여할 여성과학기술인 역할 강화에 필요한 인적 자원 및 국가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정책·제도를 제안하는 행사로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성명 43개 중 하나로 기재되는 대단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 여러분들이 주최하는 "연구 분야별 여성과학기술인 학술세션"과 대전광역시와 함께하는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을 열심히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과학탐구교실은 참여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희망학교 확대로 회원여러분의 귀중한 과학교육 기부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신입회원들과 만나는 소통의 자리, 그리고 신진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Jumping up 프로그램 또한 참가자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재캐나다, 재미 한인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와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대 임원진 및 운영위원들께 이 모든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탁월한 능력과 책임감, 그리고 애정을 갖고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묵묵히 맡은 일을 하며, 모든 일에 함께 노력해 주신 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를 이끌어 가실 임효숙 13대 회장님과 임원진들 한분 한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제 지난 12년 동안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와 함께 해 온 모든 날들을 생각해봅니다. 회원으로 회장으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울타리 안에서 훌륭한 분들을 만나고 함께 성장해 온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 효 숙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13대 회장

- 現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現 과기정통부 직할기관(교육인력양성형) 평가위원장
- 現 Board Member of International Charters Space & Major Disasters
- 現 한국지리정보학회 부회장
- 現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 취임사

등대처럼 빛과 길이 되어주는 KWSE를 지향합니다.

사랑하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2년 동안 동역할 13대 임원진들과 함께 2020년 1월 1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과 더불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연일 매스컴은 떠들썩합니다. 혼란한 시기였지만 회원님들께서는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에 대한 기회균등, 지위향상 및 역량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 여성인력 활용을 강조하는 라가르드 IMF 전 총재가 몇 년 전 방한 시 "한국은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좋은 제도를 상당히 갖추고 있으나, 문화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일언처럼 좋은 제도가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좋은 습관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2대에 걸쳐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신 선배 회장님들의 노고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회원 여러분들이 연구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도록 힘이 되어주는 KWSE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KWSE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연구현장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어 공감의 폭을 넓혀가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중견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는 대내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간리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 함양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열악했던 연구현장에서의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눈물과 땀으로 영글었던 귀한 경험들은 뒤따르고 있는 후배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기에 후배들에게 길이 전수되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태 및 국제여성과학기술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올해의 여러 활동을 기반으로 내년에 개최될 BIEN 2021에는 회원들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서 국내외 여성과학기술인들이 함께 하는 큰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이기에 마음 든든하고, 막막한 바다와 같은 연구현장을 헤쳐나아가야 할 때 등대처럼 빛과 길이 되어주는 KWSE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WSE 2020 연중계획

01	January	· 제1회 이사회 개최 · 연구 분야별 학술행사 모집공고	· 여성R&D인력 창업 컨설팅 · 2020 여성과학자 Webinar kick-off meeting
02	February	· 연구 분야별 학술행사 제안서 선정	· 2020 여성과학자 Webinar 2차
03	March	· KWSE 77호 소식지 발간 ·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홈페이지 개설	· 2020 여성과학자 Webinar 3차
04	April	· 2020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운영 (~11월) · 2020 여성과학자 Webinar 4차	· 제2회 이사회(확대) 개최
05	May	· 제3회 이사회 개최 · 2020년도 KWSE 기술자문지원 사업 운영	· 연구 분야별 학술행사 개최 · 2020 여성과학자 Webinar 5차
06	June	· 신진 여성과학기술인 Jumping-up 프로그램 운영 · 광역권별 워크숍 개최 · 연구 분야별 학술행사 개최	· 지역별 Smart Sister Program 개최 · 2020 여성과학자 Webinar 6차
07	July	· 제4회 이사회(확대) 개최 · KWSE 78호 소식지 발간 · 여성R&D인력 창업 컨설팅	· 지역별 Smart Sister Program 개최 · 2020 여성과학자 Webinar 7차
08	August	· 한-미 학술대회(UKC) 참석 및 학술세션 개최	· 2020 여성과학자 Webinar 8차
09	September	· 제5회 이사회 개최 · 제18차 세계여성과학기술인대회 (ICWES18) 참석 (영국) · KWSE-KIRD 여성과학자 마음 챙김 과정	· 연구 분야별 학술행사 개최 · 2020 여성과학자 Webinar 9차 · 한-캐나다 학술대회(CKC) 참석
10	October	· 제10회 INWES APNN 참석 (대만) · 연구 분야별 학술행사 개최	· 지역별 Smart Sister Program 개최 · 2020 여성과학자 Webinar 10차
11	November	· 제6회 이사회(확대) 개최 · KWSE 79호 소식지 발간 · 광역권별 워크숍 개최 · 지역별 Smart Sister Program 개최 · 과학탐구교실 워크숍 및 우수소감문 시상식 개최	· 2020 여성과학자 Webinar 11차 · 2020 KWSE/APNN International Young Woman Scientist Camp & Smart Sister Workshop 개최
12	December	· KWSE 제28회 정기총회 및 융합워크숍 개최	· 2020 여성과학자 Webinar 12차

※ 상세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KWSE 2020 사업소개

KWSE는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과학적 사고능력을 향상시켜 미래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교류 진흥, 교육문화 확산, 연구학술 및 정보교류, 정책기획 등의 다양한 역할로 KWSE의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2020년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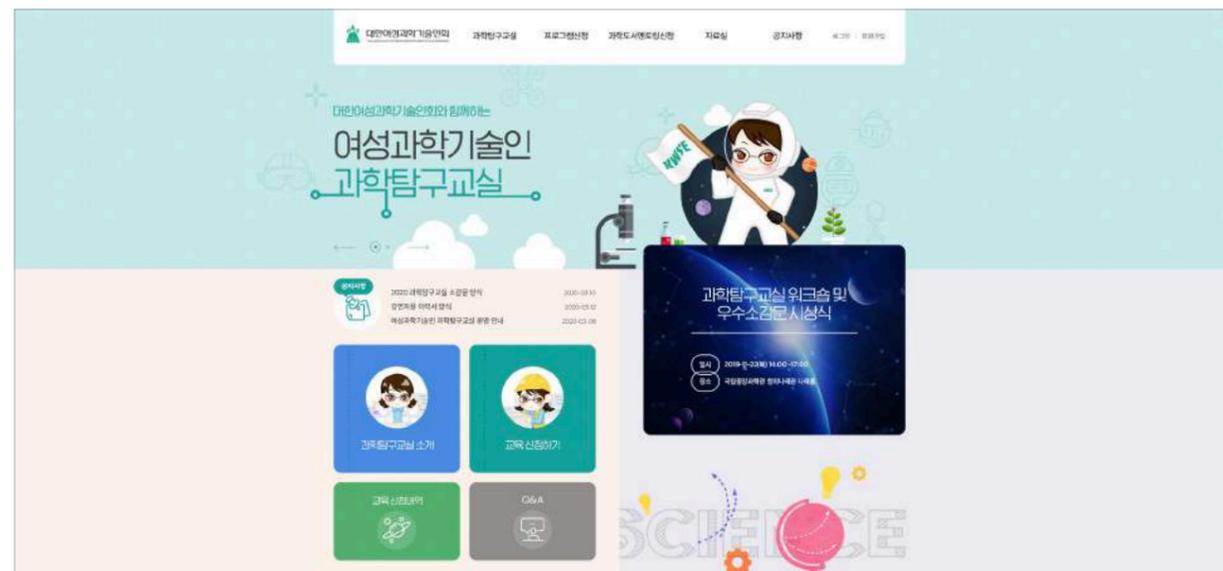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단체협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제고, 인력교류 및 협력연구 기반 확대,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원으로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해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글로벌 역량 제고 및 네트워크 확대, 연구 분야별 여성과학기술인 학술교류 및 국제 협업 기반 확대,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협력 강화 사업을 운영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글로벌 역량 제고 및 이동성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대전광역시 청소년들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 과학 대중화에 기여하고 과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과학자들이 과학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강연하여 청소년에게 과학자 및 과학 기술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학교 교육에서 다루기 어려운 전문 과학기술 분야와 직업을 연계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과학적 잠재능력을 발굴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에는 과학탐구교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강연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성과 홍보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학교와 강연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Q&A 게시판을 통해 과학탐구교실 및 과학기술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공간을 제공한다.

KWSE 2020 제13대 임원진 및 위원회 소개



교육학술위원회

- 회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연수, 세미나 등)
- 학술행사기획 주관 (워크숍, 포럼, BIEN 2021 등)

교육학술위원회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환경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연수,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융합과 소통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이 주관하는 연구 분야별 여성과학기술인 학술세션을 지원하고, 과학기술분야를 넘어 인문학분야의 이해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하여 통섭이 가능한 교류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2021년에는 세계 여성과학기술인들과 함께하는 국제여성과학기술인 융합학술대회인 BIEN 2021을 개최할 계획이오니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제네트워크위원회

- INWES, APNN 활동 및 해외단체와의 협력
- 국제정책협력 활동
- KWSE-KWiSE Webinar 운영
- 외국어홍보자료 감수

국제네트워크위원회는 KWSE 회원들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WSE가 주동적으로 활동해 온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INWES) 이사회 활동과 함께 세계여성과학기술인학술대회(ICWES) 참석, 국제기구 활동 지원 등 국제 사회 및 여성과학기술인과의 교류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4년부터 진행해온 아시아-태평양 여성과학기술인과의 국제정책협력 연구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추진하여 NGO로서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및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네트워크(APNN)과의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더불어 재외 우수 여성한인과학기술인과의 연구성과 공유 및 국제공동협업 도출을 위한 웨비나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보다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미정 부회장
1990년도에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Alabam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화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김기영 운영위원
2002년도에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안선주 운영위원
2002년도에 중앙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화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김희연 이사
1996년도에 충남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김보경 운영위원
2000년도에 동국대학교 자연과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정민 이사
1996년도에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KT&G 중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조은위 이사
1987년도에 연세대학교 생화학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박지연 운영위원
1999년도에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정한의 운영위원
2008년도에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위원장 박진아 부회장
1988년도에 Columbia University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Univ. of Pennsylvani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정서영 운영위원
2005년도에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곽지혜 이사
1996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e Montpellier II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정진영 운영위원
2004년도에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현주 이사
2004년도에 MIT Electrical Engineering과를 졸업하고 Stanford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조성희 운영위원
2002년도에 단국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정인 운영위원
2003년도에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포항공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KWSE 2020 제13대 임원진 및 위원회 소개



Planning and Management Committee

기획운영위원회

- KWSE 사업 기획 및 관리 지원
- Jumping-up Program 기획 및 운영
- KWSE 지부활동 지원 및 Smart Sister Program 운영
- YWS Camp 및 Smart Sister Program 총괄워크숍 주관

기획운영위원회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킹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역권별 지부 운영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촘촘한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산학연 융합아카데미 개최, 신진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한 외국인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Smart Sister Program을 운영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한 Young Woman Scientist Camp를 통해 우리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신진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종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는 Jumping-up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통해 여러분들이 더 큰 시야를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 | | | |
|---|--|--|
|  <p>위원장 윤정선 부회장</p> <p>1991년도에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재직 중이다.</p> |  <p>위원 이유미 이사(대구경북지부장)</p> <p>1985년도에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북대학교에 재직 중이다.</p> |  <p>위원 안인성 운영위원</p> <p>1994년도에 고려대학교 응용동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재직 중이다.</p> |
|  <p>위원 전상미 이사</p> <p>2000년도에 한양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재직 중이다.</p> |  <p>위원 한송희 이사(광주전남지부장)</p> <p>1993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목포해양대학교에 재직 중이다.</p> |  <p>위원 오현주 운영위원</p> <p>1993년도에 부산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수산물학회에 재직 중이다.</p> |
|  <p>위원 최선 이사</p> <p>1987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 재직 중이다.</p> |  <p>위원 송희은 운영위원</p> <p>2000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Washingto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다.</p> |  <p>위원 이미영 운영위원</p> <p>1997년도에 충남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p> |
|  <p>위원 김영혜 이사(부산울산경남지부장)</p> <p>1981년도에 부경대학교 해양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수산물학회에 재직 중이다.</p> |  <p>위원 문지영 운영위원</p> <p>2000년도에 충남대학교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뇌연구원에 재직 중이다.</p> |  <p>위원 이승미 운영위원</p> <p>1995년도에 전북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p> |



Public Services and Liaison Committee

대외협력위원회

- 비회원 대상 재능기부사업 (강연, 콘텐츠 개발)
- 사회봉사 활동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 자문위원회 운영

대외협력위원회는 KWSE 회원을 중심으로 대외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과학탐구교실 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과학기술인 강연, 과학실험 실습, 이공계 대학교 탐방 및 멘토링,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방문 등을 추진하여 과학의 대중화와 미래 과학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재권 아카데미와 융합 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회원여러분들의 네트워크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추진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융합 아카데미의 주제와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제언을 위한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 | | |
|---|--|
|  <p>위원장 주성진 부회장</p> <p>1987년도에 한양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 중이다.</p> |  <p>위원 안운영 운영위원</p> <p>1991년도에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재직 중이다.</p> |
|  <p>위원 성은정 이사</p> <p>2000년도에 큐슈대학교 인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p> |  <p>위원 유향미 운영위원</p> <p>1999년도에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 중이다.</p> |
|  <p>위원 임채덕 이사</p> <p>1989년도에 전남대학교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재직 중이다.</p> |  <p>위원 조근희 운영위원</p> <p>1989년도에 충남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재직 중이다.</p> |
|  <p>위원 김은성 운영위원</p> <p>1985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재직 중이다.</p> | |

KWSE 2020 제13대 임원진 및 위원회 소개



Web Portal and Information Committee

정보위원회

- 여성과학기술인 DB 구축 및 관리(신입회원 관리 포함)
- 홈페이지, SNS 관리 등

사회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KWSE가 노력하고 있는 활동 정보 제공과 KWSE가 결속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민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우리의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회원 및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Policy Committee

정책위원회

- 정책 제안 (정책사안 별 TFT운영)
- 회원 애로사항 개선 발굴 제안
- 회원 역량강화 사업 기획

그 동안 KWSE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기획을 수행하여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많은 여성 리더들이 배출되었고, 현재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KWSE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과학기술인 단체로 발전하였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KWSE 회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여 개선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의 이사

1993년도에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기계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경숙 운영위원

1995년도에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안설아 이사

1995년도에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보연 운영위원

2012년도에 부산대학교 전자전기통신공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기계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박귀순 운영위원

2001년도에 울산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Old Dominio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에 재직 중이다.



위원
하현영 운영위원

2002년도에 연세대학교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재료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위원
양성운 운영위원

1991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Polytechnic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위원장
이정숙 부회장

1987년도에 경북대학교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김혜란 운영위원

1994년도에 충남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Clemson Univ.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김상경 이사

1993년도에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Georgia Institut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장은숙 운영위원

1987년도에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농업과학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진수 이사

1990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광학기기공단에 재직 중이다.



위원
정은혜 운영위원

2002년도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하고 조지아공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김미랑 운영위원

1994년도에 영남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정학숙 운영위원

1996년도에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Harvard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KWSE 2020 제13대 임원진 및 위원회 소개



Public Relations
and Editorial Committee

홍보편집위원회

- KWSE 소식지 및 홍보지 발간
- 보도자료 제공 및 홍보자료 제작

홍보편집위원회는 KWSE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홍보와 KWSE 회원들의 소식과 KWSE 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의 현황과 소식들을 회원들과 공유하는 소식지와 웹메일 뉴스레터 발간을 주요 업무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KWSE의 행사 계획이나 활동 그리고 성과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보도자료와 홍보자료를 발간합니다.

매달 메일로 전하는 웹메일 뉴스레터는 KWSE 회원님들의 수상, 이직, 승진 등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소식들을 받아 전하고 있습니다. 연간 3회에 걸쳐 발간되는 소식지는 KWSE 의 소식을 좀 더 자세하게 공유하고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담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홍보편집위원회에서는 소식지를 통해 KWSE 회원 전세대의 소통의 장이 되도록 고경력자부터 신입회원들까지의 이야기들을 고루고루 담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WSE의 보도자료와 홍보자료들을 통해 KWSE의 여러 활동들이 대외적으로 잘 홍보되어 KWSE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항상 활짝 열려있는 KWSE 홍보편집위원회에 회원님들의 소식과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은정 이사

1997년도에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천문연구원 재직 중이다.



위원
김지선 운영위원

2001년도에 한밭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강현주 이사

1999년도에 안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재직 중이다.



위원
성정식 운영위원

1992년도에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재직 중이다.



위원
김소희 운영위원

2001년도에 단국대학교 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수료를 하였다.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재직 중이다.



위원
이우경 운영위원

2002년도에 연세대학교 자연과학부를 졸업하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천문연구원 재직 중이다.



Executive
Committee

총무단

- KWSE 업무 총괄 운영
- 위원회 간 상호협조와 활동 지원
- 타 분과 업무 지원

총무단에서는 사무국과 함께 KWSE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7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사업, 행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과학기술인 단체로서 그동안 구축해 온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보다 향상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지위 향상과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KWSE가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겠습니다.



총무이사
김현옥 총무이사

1997년도에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베를린공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재직 중이다.



위원
이서운 운영위원

2004년도에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학위과정 중이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재직 중이다.



총무이사
최은영 총무이사

2000년도에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재직 중이다.



위원
조혜륜 운영위원

1999년도에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재직 중이다.



위원
서윤경 운영위원

2000년도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재직 중이다.



Auditor

감사

- 예산집행 및 수행사업 감사
- 정관에 의거한 회 운영 감사

감사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예산집행, 회계결산을 확인하고 회장선거, 총회 및 이사회, 회원의 자격요건, 수행사업 등이 정관과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운영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역대 임원들과 회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회원의 수가 많아지고 사업의 예산집행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집행과 사업수행을 원칙에 의거하여 투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감사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
김숙경 감사

1989년도에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직 중이다.



감사
최선미 감사

1994년도에 경산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 재직 중이다.

인사이트∞

당신의 스펙트럼을 넓혀줄 심층 인터뷰 **글** 김소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지선 (한국과학기술원)

점핑업 소감

Q. 2019년 KWSE가 개최한 '2019 신진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Jumping-up 프로그램'에서 유익하고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부사장님께서 Jumping-up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 여성과학기술인들과 만나신 소감과 인상이 어떠셨는지, 못 다하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점을 더 나누고 싶으신지 질문드립니다.

A. 제가 WIN(Women in Innovation, 리더를 키우는 여성리더들의 모임, www.win.or.kr)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10년쯤 됐거든요. 그 활동을 한 10년쯤 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이 '기술을 하시는 분(여성)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세일즈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기술을 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근데 막상 거기(KWSE) 가보니깐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이 와 계신 것이예요. 성장이나 본인의 커리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신기했어요. 저희가 WIN이라는 단체에서는 하는 일은 중간관리자를 육성하는 것이예요. 중간관리자가 임원레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면서, 과학기술 쪽에서 그러한 니즈들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미영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전공, IT, 그리고 영업

Q. 부사장님께서 영문학 전공이신데 IT기업에서 영업을 하게 된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부사장님께서 영문학에서 이제 IT업계로 뛰어 드셨는지, 그 때 이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A. 혹시 브런치라는거 아세요? brunch.co.kr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브런치 작가등록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 두 번째로 쓴 글이 그거예요. 문과 졸업생으로 IT 영업을 시작한 얘기거든요.

제 첫 직장은 우연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우연하게 IT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가 98년 IMF가 터졌죠.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다시 IT회사, 새로 시작하는 중소기업을 가게 된 거죠. 그 과정 중에 큰 기업의 인사부 분을 만났는데, 제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 경력직으로 뽑기에 '당신 경력을 보니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어떤 특정부서에 당신 이력서를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지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직장에서 직장인이 아니고 직업인으로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고, IT 업계의 여러 가지 일중에 제가 하면 승산이 있겠다 하는 것을 찾기 시작해서, 결론을 영업으로 냈어요.

당시엔 영업이 우습게 보였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지, 네트워크였어요. 셀링(selling)을 한다는 것은 어딘가 가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하나 번역을 해서 번역서를 들고 영업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문과 출신인데 IT 일을 하게 됐고요. 첫 직장에서 이 일 저 일을 해봤던 경험이 제가 빨리 임원이 되는 데, 조직을 이끄는 되는 데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일만 보지 않았거든요. 제가 전체를 보는 습관을 첫 직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덕에 제가 영업하고 그 다음에 지사를 맡을 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이지요. 지금도 많이 도움이 돼요.

보스, 리더

Q.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부사장으로서 가장 주력으로 하고 계시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A. 지금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고객의 디지털 혁신'을 돕는 것이예요.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나온 뒤부터 급격하게 기본 경제가 바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날(강연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버(Uber)와 같은 회사가 나와서 기존의 교통수단에 대한 개념을 바꾸었잖아요. 에어비앤비(airbnb)가 나와서 기존의 힐튼(Hilton)이나 메리어트(Marriott) 호텔이 70년에 걸쳐서 했던 일들을 에어비앤비는 3~4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문제는 자기네만 따로 하면 좋은데, 기존 업계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고객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 함께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것을 도와드리는 일이지.'

AI와 빅데이터 1

Q.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 같은데, 부사장님은 빅데이터, AI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MS가 SK텔레콤이나 두산 같은 기업들의 디지털로의 전환을 돕는다는 기사도 보았고,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 MS가 빅데이터나 AI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디지털 혁신이란 디지털을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혹은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형태로 혁신하는 겁니다. 근데 디지털 혁신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데이터이거든요. 예를 들면 슈퍼마켓을 한다면, 슈퍼마켓에 오는 사람, 물품 이런 것들이 데이터예요. 기존의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더라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와서, 어떤 물품들을 더 사가더라 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결국 그런 정보들에서 새로운 인사이트(Insight)를 만들어내고, 제품을 개선하거나 혹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지요. 슈퍼의 고객이 오프라인 슈퍼에 오지 않더라도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앱을 써서 주문하게 한다면가 이런 새로운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디지털 혁신인거거든요. 이런 것은 데이터에서 출발을 해요. 데이터를 모아두고 뭔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프로세싱을 하는데 투자가 많이 들어요. 근데 클라우드(cloud)가 나오면서 그게 훨씬 쉽고 값싸졌어요.

클라우드가 갑자기 뜬 이유는 이런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모아서 가치가 커졌는데, 그것을 값싸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MS가 하는 일은 클라우드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그런 일들을 값싸게 혹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예요.

AI와 빅데이터 2

Q. 미래사회에 기업에게 AI나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갈 개인들은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요? 또한 많은 여성 과학기술인이 AI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저는 사실 기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더 나은 종을 내기 위해서는 이종교배를 시키잖아요. 결국 이종교배를 시켜서 우량의 형질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저는 다양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변화가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자들에게도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감지를 하려면 우리 스스로한테 다양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의 다양성',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빨리 배울 수 있는 습관을 가지는 것,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육아도 해야 하고 해서 상대적으로 네트워킹도 약한데, 지금은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런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길들이 있거든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페이스북(facebook)이나 링크드인(LikedIn)에도 올려보았어요. 제 페이스북 글을 올렸을 때,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백 명 정도가 되요. 그런데 페이스북보다 상대적으로 덜 가까운 네트워크인 링크드인은 읽은 사람이 2일 만에 4천명이 넘었어요. 이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내 생각보다 크고,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약간 '느슨한 네트워크'를 활용해보자는 것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을 스트롱 타이(strong tie, 강한 고리)라고 하는데, 그 강한 고리가 연결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는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지요.

여성 후배

Q. 부사장님도 육아를 하시면서 직장생활을 하셨을 텐데요. 많은 후배 여성들이 여성할당제나 참여도 좋지만, 당장 육아 같은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미리 겪어보신 선배로서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A. 제가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애들을 전적으로 봐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봐주시는 그런 환경 하에서도 저는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기대치를 적정하게 세팅하는 거였어요. 시간이 없어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 관계들에서 굉장히 힘들어 해요. 저는 이런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관계가 좋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근데 나에게 정해진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데,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넓게 잡아 놓으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관리(manage)하기가 힘들어져

요. 그래서 그런 관계, 거리, 기대치 관리들을 잘하는 것이 정해진 내 리소스(resource)를 현명하게 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되게 낮추는 편이에요. 가정에서는 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하지요. 제가 육아를 할 때도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를 낮춰 놔왔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건강한 관계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장으로 왔을 때는 저희 팀원들 하고 저와의 관계, 혹은 옆 부서 직원들과 저의 관계의 기대치. 핵심(key)은 복잡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들마다의 기대치를 합리적으로(reasonable)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리셋, 용기

Q. 지난 강연에서 부사장님께서 과감히 리셋하시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갔다고 하셨는데요. 새롭게 도전하실 때 설렘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께서 이러한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껍질을 깨는 용기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면, 어떤 도전을 하실 계획인지?

A. 저는 성장 욕구가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외적인 것이 좋더라도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싫고 바꾸고 싶어요. 그 다음은 긍정적이예요. 실패를 하거나 시도를 했는데 잘 안되면, 해석을 좀 다르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됐어, 그것은 내 탓이 아니고 이 상황 봤을 때는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들면 '그래도 무엇인가 배웠어.' 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길로 간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약간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는 습관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실수는 줄일 수 있다, 포기하는 것을 빨리 포기하고, 포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미래사회

Q. 부사장님께서 저희보다 먼저 경험하신 인생의 선배로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도 통찰을 얻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아니면 그 이상,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그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A. 아까 얘기해주신 거랑 되게 비슷해요, wrap-up 성격으로 비슷한 얘기가 될 거 같은데, 첫 번째, 어쨌든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 셋은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운다'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회사 회장님이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라고 하세요. 계속 바뀌니까 정답이 없고요.

답이 없으니까 계속 배워가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할 거 같고,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만의 소통할 수 있는 루트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느슨한 고리, 약한 고리 요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시도해보면 좋겠다, 세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Q. 커뮤니케이션 능력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의 그런 능력은 원래 좀 타고 나신 면이 있으세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나중에 후천적으로 길러지신 게 있으신가요?

A. 제가 좀 소통을 하는 거 같나요? (웃음) 저는 공감을 잘 해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게 공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정적인 공감이 있어요.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감이 끝나면 안 돼요. 공감이 그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공감을 넘어서서 인지적인 공감이 돼야 돼요. 입장을 바꾸고 그 사람 위치에서 인지해 볼 수 있는 능력, 인지하는 능력이 같이 발달이 되어야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공감능력이 남들보다 좀 더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것이 감정적인 공감을 넘어서서, 세일즈를 하면서 그런지, 그 인지적인 공감으로 이게 발전이 되면서 이게 더 가속이 되는 거 같아요. 공감을 많이, 잘하는 편입니다.

Q. 직원들이 좋겠네요.

A. 좋은가? 우리 직원이 처음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일주일 출장 다녀 보니까 (부사장님) 배려가 장난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기분이 좋으면서 생각을 해 보니깐, 배려라는 것도 결국은 공감이 돼야 배려가 되는 거 같아요. 나의 코어(core) 중에 하나가 공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Q. 감사합니다.

스포트라이트

대한민국의 하늘을 책임지는 여성과학자들 - ST(Space Technology) 분야 이야기

글 이우경 (한국천문연구원)



“Here at NASA, we all pea the same color”

2016년 개봉한 영화 ‘히든 피겨스’에서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역을 맡은 케빈 코스트너가 ‘흑인 여성용 화장실’이라고 쓰인 팻말을 시원하게 부순 후 얼떨떨하게 서있는 사람들을 보며 하는 말이다. 인종차별이 만연하고 남녀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에다 여성이기까지 한(!) 캐서린 존슨, 도로시 본, 그리고 메리 잭슨 3인방은 미국 우주 개발의 핵심인 NASA에 근무하며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면서도 수학자로서, 엔지니어로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2019년 11월, 우주개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의회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고 그들이 일하던 NASA 랭리(Langley) 연구소는 캐서린 존슨의 이름을 딴 건물을 지었다. 무려 50년 만에 일이다.

2020년 대한민국은?

성별, 인종을 비롯해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뒤늦게라도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법까지 제정해야 할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차별이 만연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1977년 보이저 1호가 토성을 지나가기 전 지구를 향해 찍은 사진을 보며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 광활한 우주의 점 하나에 모여 살고 있는 우리는 그냥 ‘지구인’ 아닌가?”

우리는 소수다

50년 전 캐서린 존슨이 살던 시대에도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소수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천문, 우주 그리고 항공분야에서 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을 말한다. 각 분야를 합쳐 성비로 따지면 남녀 7:3이 될까 말까 할 것 같다. 소수는 언제나 불편하다. 다수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고정관념 때문이다. 다수가 사악한가? 아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김지혜 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저 그들이 누리는 ‘평범해 보이는 특권’을 인식 못 해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소수들이 모여 얘기를 해 보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떨까? 자, 이렇게 해서 ST 분야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여기 모이기 시작했다.



2019 ST (항공 우주천문) 분야 학술행사

모여 봅시다 그리고 얘기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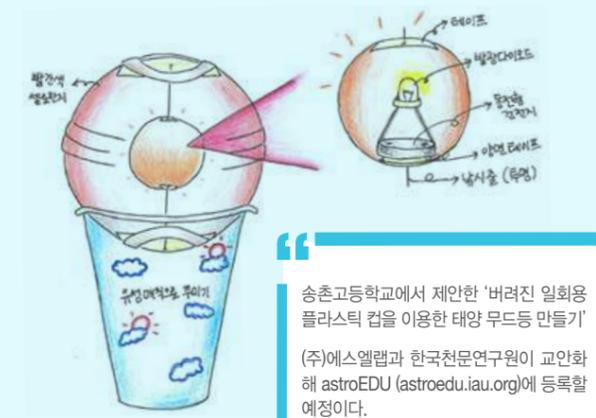
2016년부터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는 각 연구 분야별로 학술행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Space Technology(ST) 분야에서는 매년 천문, 우주, 항공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학술행사를 진행했다. 2016년 서울에서 열린 EAMA10: 10th East Asian Meeting on Astronomy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행사에서는 앞서 4월에 설립한 한국천문학회 여성분과가 주최해 한국과 동아시아 여성 천문우주과학기술인의 현황과 앞으로의 역할, 그리고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 학술행사는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성 천문학자의 역할을 논의하는 최초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17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항공/우주 분야의 비전과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학술행사는 여성이 전체 직원의 10% 미만인 ‘여성 불모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최하여 처음으로 연구원 내 여성과학기술인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드디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여성협의회를 발족하였다. 2018년 제1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학술대회 기간에 열린 ‘천문우주분야 여성과학기술인의 도전과 역할’ 행사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주최해 여성과학기술인 인력 육성과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마련하였다. 특히 30년

넘게 연구원에 재직하신 선배 여성과학기술인의 어려움과 극복 사례를 공유하며 후배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차별의 중심에 놓여있는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들이 겪는 결혼과 출산에 따른 학위 과정의 어려움, 경력 단절, 일·가정 양립,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 행사는 한국천문연구원 원장과 한국우주과학회 회장을 포함한 연구원, 학생, 교수 등 상벌에 관계 없이 여러 직군과 연령층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했다. 2019년에 열린 ‘항공/우주/천문 미래비전과 차세대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 행사는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과학 교육의 역할과 진로 지도를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왜 우리는 소수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매듭을 풀기 시작한 이 행사에서는 초중고와 대학교육에서 당연한 우주과학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학교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산업계의 중요성 역시 강조했다. 특히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이 행사를 통해 산업체(주)에스엘랩)와 연계하여 노후 장비를 사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이다. 대전지역 고등학교 1, 2학년층을 대상으로 ‘애들아! 우주로 함께 가자!’ 프로그램을 개최, 태양 흑점 망원경을 실제 운영해 보고 ‘태양 무드등’, ‘태양 샌드위치 만들기’ 등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과학 교실을 열어 직접 사회 배려 계층 아이들에게 천문·우주 과학교육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우주로 함께 나아갈 우리

2020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ST 분야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공동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UN에서 진행하는 “Space for Women” 프로젝트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흐름을 공유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다시 한번 모이고자 한다.

미래로 우주로 가는 발걸음, 같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송촌고등학교에서 제안한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한 태양 무드등 만들기’ (주)에스엘랩과 한국천문연구원이 교안화해 astroEDU (astroedu.iau.org)에 등록할 예정이다.”



자기소개와 KWSE를 알게 되면서, KWSE에 바라는 점을 얘기해주었습니다.



가천대학교
이내운

● 현재 가천대학교 바이오토폴라머 교수로 재직 중이고, 생물과 화학을 접목하여 병균 검사 키트인 바이오칩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여교수의 비율이 약 20~30%로 타 대학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적은 비율이고, 협업을 통해 하는 과제들에 여성들의 참여가 어려운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랜 교직생활동안, 이공계 여학생들의 경력개발을 독려하고 지원해주고 싶었는데, 학회 여성위원장을 맡으면서 KWSE와 KWSE의 연구분야별 학술세션 개최 지원에 알게 되어 KWSE에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여학생들이 박사학위과정에 진입하면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경력 개발과정에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KWSE를 통해 연구 분야 및 인력 간 네트워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위원들을 섭외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일일이 찾아서 직접 연락을 드리곤 했는데, KWSE에 전문 분야의 인력을 찾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WSE 홈페이지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집합장소 (온라인 장)의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고민이 있을때 KWSE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에 특화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윤경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발사체체계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에는 250여명의 인력이 있는데, 이 중 여성과학기술인은 11명으로 4%에 불과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1,000여명인데, 이 중 여성보직자도 단 3명입니다. 여성인력이 소수라 남성위주의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배 여성과학기술인들의 KWSE 활동과 BIEN 국제학술대회행사 등으로 KWSE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가입은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입에 대한 부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입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에게 좋은 에너지를 보여주는 여러 분들이 KWSE 회원이시고 이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는 점이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직자와 중간관리자, 특히 남성보직자의 경우에 KWSE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KWSE 학술대회나 모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기관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지원과 지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입 후에는 KWSE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소식들을 메일로 받을 수 있고, 원하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입해서 KWSE와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정미경

●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의학부에 재직하고 있고, 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이 전통의학으로 과학분야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다양한 과학분야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암 연구에서는 한·양방 통합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의·한 공동의 중개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한의학회 산하의 의료기관과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진단 표준화와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한 생물정보학, 의공학 분야, 한약제제의 작용기전 및 항암제와의 약물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한 생물학,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자분들과의 협연이 중요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남녀 연구원의 비율이 50:50으로 다른 출연(연)보다 여성 연구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거나 여성이라 힘든 점이 덜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직자는 남성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타 출연(연)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KWSE에는 연구원 입사 직후 주변 선배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추천으로 자연스럽게 알게되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Jumping-up Program에 참석하였는데, 다양한 과학 분야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고, 타 출연(연) 여성과학기술인들과의 네트워킹과 소통의 자리를 갖을 수 있어서 의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올해도 좋은 자리에 자주 참여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 개최

일자: 2019년 11월 21일 (목) / 장소: 부산 벅스코



개회사_윤혜은 회장

11월 21일 목요일 부산 벅스코에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공동 주최로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 협력을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끄는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강화'라는 주제 아래 정부와 비정부 기구가 힘을 합쳐 본 포럼이 구성되었다. 정책포럼에서는 국내외 산·학·연·관의 과학기술인 12개국 150여명이 참석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이 한-아세안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반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 간의 협력 관계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환영사_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윤혜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발전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확대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였다.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은 환영사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정책을 통해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고 질적·양적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공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은 축사를 빌려 "오늘 정책 포럼을 통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교류하며, 협력하여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여성과학기술인이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이어서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여성과학기술인 활용과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4차 산업을 선도할 여성들이 지닌 잠재력을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서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축사_이공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한국 및 아세안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의 발전적 확장을 도모하고자 아야코 이나가키 (Ayako Inagaki) 아시아개발은행의 부국장을 초청강연자로 모셔 아시아 지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강연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심적인 과학기술혁신에



축사 김윤일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장



초청강연 Ayako Inagaki 아시아 개발은행 부국장

필수적인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 및 아세안 국가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정책 및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총 6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태국, 필리핀, 한국)의 대표 여성과학기술인 이 각 국가의 대표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및 육성·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패널토론자로 미얀마 대표인 Fed. of Myanmar Engineering Societies의 Htay Htay Win 부회장은 'Need to Deepen Cooperation in STEM Innovation' 발표를 통해 미얀마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STEM분야의 경쟁력 제고 및 여성과학기술인 권리 향상을 위한 외부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였다.

베트남 대표인 Vietnam Association for Intellectual Women의 Le Thi Khanh Van 부회장이 두 번째 패널토론자로 나서 'Status of Supporting Vietnamese Women in STEM'의 발제를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정책의 부재로 인한 한계점을 공유하며 한국과 베트남의 여성과학기술인 간 협력관계 구축에 적극적 관심을 표현하였다.

세 번째 패널토론자로 필리핀 대표인 Women Engineers Network of the Philippine Technological Council의 Juana Tapel 회장은 'Strengthening International Networks among Korea and ASEAN'을 주제로 베트남 여성과학기술인 단체를 소개함과 동시에 한국과 베트남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간 MOU를 제안하였다.

말레이시아 대표인 The Institut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의 Leong Wai Yie 박사는 'Malaysia: Women in STEM'의 발제를 통해 STEM 분야의 여성 참여율과 젠더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국 정부의 30년간의 노력을 공유하였다.

태국 대표로 참석한 Geo-Informatics and Space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의 Supatcha Chaimatanan 박사는 'Woman stem of STEM in Thailand' 발제를 통해 여성에게 강요되는 성역할을 문화를 비판하며 STEM 분야의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임을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로 발표를 진행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현옥 박사는 'We, Together, Women in STEM'을 주제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여성리더십 육성에 충분한 투자와 함께 STEM 분야 여성과학기술인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남녀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좌장인 동서대학교 김정선 교수는 여러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본 포럼이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국제협력 활동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패널토의를 마무리하였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본 국제포럼 개최를 통해 각 국가의 문화와 환경이 상이하지만 경제발전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국제적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 협력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였다. 본 국제포럼의 성과결과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의장 성명(경제 협력 부문)에 명기되어 한-아세안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 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국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패널토론



STEM 분야에서의 여성의 지위

Malinda Vania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도네시아)

STEM 분야의 발전은 사람들의 경제 상황, 안전, 안락함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에 혁명을 일으켜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역시 장기적으로 STEM 분야의 발전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STEM 분야의 발전은 능력 있는 인적 자원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STEM 분야의 인적 자원 다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양성은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코트 페이지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The Difference>에서 '다양성의 부족 또는 상실은 재능의 상실'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번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에서 우리는 여성의 STEM 분야 참여와 관련하여 다양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STEM 분야의 발전은 과학적 재능에 의존하며 과학적 재능은 숙련된 멘토, 동료, 교수의 노력과 헌신적인 지도를 통해 양성되는 오랜 과정의 산물입니다.

보다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특히 아세안 국가의 과학기술인력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여성의 STEM 분야 참여 확대, 과학기술 인재 육성,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우수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발전은 다양한 관점에서 비롯되며, 단지 지식 탐구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성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자라왔기에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에 능숙하며, STEM 분야의 연구에서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는 창의적이고,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며, 인내심과 끈기를 필요로 하는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특징들은 여성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입받아 습득하게 되는 요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STEM 분야 진출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인적교류와 네트워킹의 기회 부족, 주변에 멘토인 롤 모델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이끌어 가고자 과학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STEM 분야를 전공하는 여학생들은 석사 과정으로 진학하면서 비율이 감소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직으로 진입하면서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남성 중심 문화의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해서 여성과학자들이 리더로 성장하기까지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STEM 분야에 지속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인지하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직장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채용과 승진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습적 행태로 인해 사회 경제적 이익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 평등의 중요성: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에서의 교훈

Purnaning Tuwuh Triwigati (광주과학기술원, 인도네시아)

요즘 우리는 성 평등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 중심적인 STEM 분야에서 성 평등을 위한 분투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STEM 분야에 더 많은 여성의 참여가 필요한 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맥킨지에 따르면 STEM 분야 미래인력은 자동화 및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육체적 작업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기술적 숙련도, 창의성,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복잡한 정보 처리 등 사회적·정서적 능력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 방향으로 기술이 이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 개최사에서 이공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전달한 것처럼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은 여성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는 여성의 특징인 경쟁보다는 협력을, 갈등보다는 화합을, 파괴보다는 생산을 위해 여성의 집단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지금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엘스비어에서 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젠더혁신 즉, 성별을 고려할 때 과학적 연구가 더 정확성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테스트도 거쳐야 합니다.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팀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성은 연구와 토론에 독특한 관점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TEM 분야 일터에 여성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성 격차를 줄이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학장인 제임스 스티어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TEM 분야 학사 및 석사 학위과정 학생의 성비는 거의 같지만 박사과정부터 조직의 최고 수준에 이르는 연구과정을 거치며 여성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멍 뚫린 파이프'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구멍 뚫린 파이프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후배들이 STEM 내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그들을 양성하십시오. STEM 분야 취업에 성공했다면, 여성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들이 꿈꾸는 직업은 성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십시오. 이는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들의 생각과 이해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에 참석하여 이렇게 위대한 여성들 사이에 서게 된 것은 장미 꽃밭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장미의 아름다움과 감상하는 한편, 장미 가시의 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앞으로도 이 행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여성만이 능력 있는 여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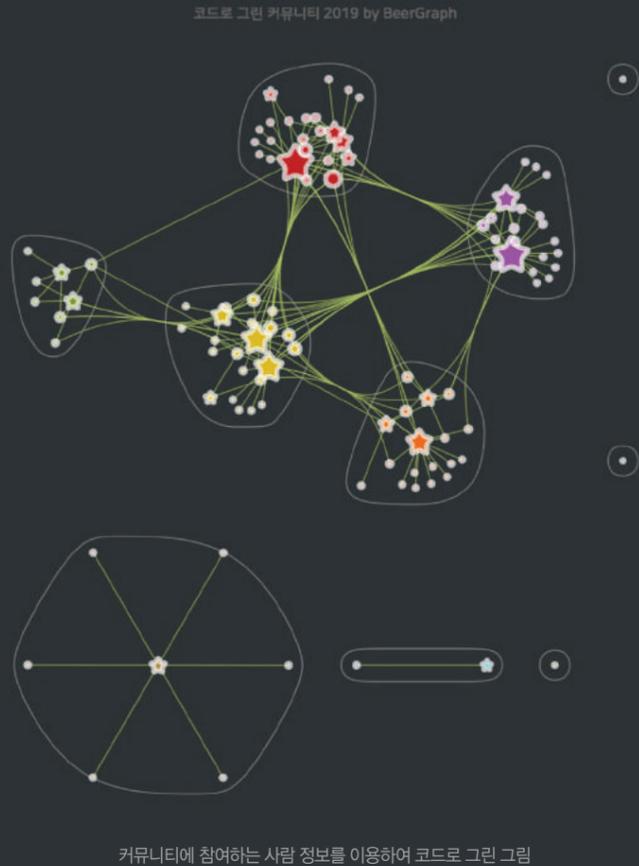
특별기고

이제는 커뮤니티 시대

글 | 강현주, 성정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에 시민들과 과학자들이 함께하는 19개 자생 커뮤니티들의 '희망 파티'가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2019년 12월 27일에 있었다. AI 예술 작가 ETRI 이주행 박사의 코드로 그린 그림 전시 설명과 참석한 커뮤니티 현황을 코드로 그려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가벼운 핑거푸드와 함께 하며, 엘리베이터 스피치로 각 커뮤니티를 1분 안에 소개, 가벼운 게임과 네트워크 시간, '함께하는 희망! 함께 가는 희망! 함께 사는 희망!' 으로 비전 선포도 있었다.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사회참여 단체와 독서 클럽, 메이커 동호회, 시민운동, 교육 문화 운동, 시민 미디어 공동체, 지식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커뮤니티들의 연합 송년회였다. 이번 특별기고에는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이 있지만 정보가 없었던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대전에서 활동하는 자생 커뮤니티를 소개한다.



❶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 클럽 '백박스 (2002년)'

책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자를 초청해 강의를 듣거나 발제자를 정해서 발표하도록 한 후 토론한다.

• (정기모임) 매달 둘째, 넷째 화요일 오후 7시 15분 / 대전 백박스홀 (탄방동 로데오타운 맞은편 박성일한의원 6층)

❷ 세계 속의 대덕을 꿈꾸는 '대덕몽 (2017)'

동네의 현안을 나누며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방안이 수립되면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및 실천 주체를 만들기 위하여 '대전혁신2050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공동관리아파트 재생 운동, 매봉산 지키기 운동, 과학동네 재생 프로그램 계획 수립,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설계 자문, 과학을 품은 향교 경주몽 설립, 삼일절 기념 앞으로의 100년 과학선포식, 광복절기념 100개의 테이블 등 지역과 상생하는 대덕을 꿈꾸며 활동 중이다.

• (정기모임)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40분 /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1층 카페

❸ 과학 문화 운동을 하는 '벽돌한장 (2014)'

정겨운 이웃들, 대덕특구 구성원들과 시민이 협력하여 세계적인 과학마을 만들기를 지향하는 공동체이다. <과학마을 과학이야기>, <과학자가 찾아가는 과학여행>,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X-STEM> 강연을 했다.

• (정기모임)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대전 유성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❹ 시공간을 관통하는 통찰을 탐색하는 '새로운 통찰을 생각하는 사람들 (2015)'

새로운 시각을 더할 수 있는 주제 선정 매주 1회 초청 강연회와 강연자와의 심층 토론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진 후 후기를 공개 공유하고 있다. 총 179차 모임 진행했다.

• (정기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 ETRI 제2연구동<훈> 교육장 / • 활동후기 모음 (공개): <https://goo.gl/XwYyZb>

❺ 10년 동안 60 명의 우리시대 거장들과 친구 되기 '프로젝트60 (2017)'

거장들의 시각을 훑쳐봄으로써 시각의 협소함에서 벗어나 이해의 폭을 넓혀 보고자 함. 만나 뵈 거장이 정해지면, 대표 학습자와 함께 읽을 책을 정해 만난다. ETRI에서 진행하는 지혜융합 인문 포럼에서 거장을 만나고 식사를 함께하며 깊은 대화를 나눈다.

• (비정기모임) 격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 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214호)

❻ 대덕밸리의 이웃을 담은 마을 미디어인 '대덕밸리라디오 (2015)'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하는 보이는 라디오 '우리가 주인공', '다다익방' 스튜디오를 다녀간 출연자는 평범한 이웃 주민에서 각 연구소의 과학자나 예술가, 시민활동가 등 500여 명을 만났다.

❼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참여를 연구하는 '시민참여연구센터 (2002)'

시민의 삶에 다가서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 활동과 민주적 과학기술의 구성과 활용에 필요한 시민 역량 강화 및 과학문화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문제해결 R&D와 사회혁신 영역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리빙랩 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관련 시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중앙정부-지자체의 사업 기획 및 정책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❽ 청년 콘텐츠 크리에이터 '라즈라빗 (2014)'

목공, 개발, 연구, 공연, 연주, 행사기획, IoT, AI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면서 재미를 추구한다. "어차피 세상은 우릴 주목하지 않아. 눈치 보지 말고 놀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자체적 민간단체로 운영하고 있다.

• 대전 서구 갈마동 981번지 지하1층 라즈라빗 / •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http://fb.com/rasprabbit>

❹ 시민 스스로가 미래의 시스템과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비전을 세우는 일을 돕는 '세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2019)'

디자인씽킹과 문제해결 사례 오픈 세미나, 부문별 단체별 비전 워크숍 지원, 문제해결 사업 수행,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세디사는 교육, 도시재생, 기업, 마을 및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의 영역에서 디자인씽킹과 퍼실리테이션의 창의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시민, 기업, 사회혁신 전문가들과 주제별 세미나, 비전 워크숍, 실행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디자인씽킹 전문 협동조합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❿ 경주의 꿈을 그려내고, 꿈을 현실로 실현하는 '경주몽 (2018)'

농업에서 관광까지 캐치프레이즈로 과학과 교육, 소통을 실행도구로 삼은 시민 공동체로써 열린포럼은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지식기부 특강을 듣고, 배우고, 행동하고, 작은 실천 이어가는 아침모임이다. '과거 천년, 미래 천년을 과학으로 열다'를 꿈꾸며 경주 향교와 함께 출범한 과학시민캠퍼스는 경주 지역을 문화-예술-과학이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인 4차산업 혁신도시로 만들어 가는 시민들의 교육 문화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 (정기모임) 매주 금요일 아침 07시 30분 / 동국대 경주캠퍼스



희망파티-대전



희망파티-경주

KWSE 지부소식

2019 광주전남지부 융합워크숍 개최

일자: 2019년 11월 8일 (금) / 장소: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2019 광주전남지부 융합워크숍 개최

11월 8일 금요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서 2019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광주전남지부 융합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본 행사는 광주전남지역 거점대학인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와 공동 주최하여 '미래기술과 생활과학'에 대한 학술교류의 장으로 개최되었다.

신호식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과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혜은 회장은 "앞으로도 광주전남지역 여성과학기술인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혜은 회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과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혜은 회장은 "앞으로도 광주전남지역 여성과학기술인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양형정 전남대학교 교수는 '미래기술과 인간의 삶'을 주제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우리 삶의 다양한 변화 모습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박지영 N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의 미래와 실현 기술'을 주제로 현재 기술 개발 트렌드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 주택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이정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동향팀장은 '식품분야의 블록체인기술 활용'에 대해 소개하며 블록체인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조석호 전남대학교 교수는 '스마트 의류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소재, 전자, 화학 등 다양한 분야와 의류가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 창출이 이루어 질 것을 예고하였다.

참석자들은 본 워크숍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생활에 미칠 영향과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향후 연구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2019 부산울산경남지부 워크숍 개최

일자: 2019년 11월 27일 (수) / 장소: 부산 코모도호텔



2019 KWSE 부울경지부 워크숍 개최

11월 27일 수요일 부산 코모도호텔 오륙도홀에서 2019 부산울산경남지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부산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원미숙 7대 회장, 김정선 부회장, 안영희 지부장 등 부울경지역 여성과학기술인과 여대생이 참석하였다. 초청 강연을 맡은 우새미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박사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일자리와 부산의 미래'를 주제로 최근 실시한 부산 여성과학기술인 활동 및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부산 여성과학기술인 활용방안과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소개하였다. 참석자들은 부산지역 공급재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과 부산지역 수요자(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 현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원정책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다.

지부총회에서는 지난 2년간 가입한 부울경지부의 신입회원 소개가 진행되었으며, 2019년 한 해 동안 활동한 지부 활동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후 참석하신 여과기인과 대학생 간 멘토링과 함께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KWSE NEWS

News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Woman Scientists & Engineers

+ 제27회 정기총회 및 융합워크숍 개최

일자: 2019년 12월 4일 (수) / 장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전 본원



개회사_윤혜은 회장

환영사_신형식 원장

축사_이상민 국회의원

초청강연_원광연 이사장

KWSE 국제협력 20년사 출판보고 및 헌정식

12월 4일 수요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제27회 정기총회 및 융합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오세화 초대회장, 정광화 3, 4대 회장, 한성욱 10대 회장, 부하령 11대 회장, 윤혜은 회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윤혜은 회장의 개회사와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KWSE 국제협력 20년사 출판 보고 및 헌정식과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3회 평생공로상 및 공로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조은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는 KWSE 국제협력 20년사를 출판하기 위한 그동안의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이어진 헌정식에서는 윤혜은 회장과 조은위 박사가 각각 오세화 초대회장과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KWSE 국제협력 20년사를 헌정하였다.

KWSE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명예를 높인 회원과 비회원에게 수여하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3회 평생공로상 및 공로상 수상자는 ▲ 평생

공로상 유향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명예연구원 ▲ 공로상 내셔널지오그래픽 아시아 재단에 수여하였다.

초청강연은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예술, 디자인, 테크놀로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과학기술을 예술과 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을 소개하며 기술적 관점과 더불어 세계관의 관점에서 제 4 차 산업 혁명의 특징 제시 하였다. 강연 내내 다양한 시각 자료를 이용하여 참석자들의 시야를 다채롭게 만든 원광연 이사장은 끝으로 '인간전용'과 '기타'로 구분된 출입구를 소개하며 미래에 대해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제27회 정기총회에서는 제26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접수하고, 2019년 사업 보고와 13대 회장선출 결과 보고, 지부활동보고가 이어졌다. 의결안건으로는 2019년도 결산 승인과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회장선거 시행세칙 개정, 13대 임원 승인 및 감사 선출에 대해 의결하였다.



KWSE 제27회 정기총회 및 융합워크숍

KWSE NEWS

+ 과학탐구교실 워크숍 및 우수소감문 시상식 개최

일자: 2019년 11월 19일 (화) / 장소: 대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개회사_윤혜은 회장 초청강연_장은숙 과장 사업소개_김숙경 부회장

11월 19일 화요일 대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사이언스홀에서 2019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워크숍 및 우수소감문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과학탐구교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과학탐구교실이 나아가갈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학생들의 우수 소감문을 시상하여 과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된 본 행사에는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윤혜은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수소감문에 선정된 학생들의 수상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많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과학탐구교실을 통해 과학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창의적인 과학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축하와 독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숙경 부회장은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성과 발표’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강연 실적과 활동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150회 강연을 통해 접수된 소감문 중 16편의 우수 소감문이 선정되었음을 알렸다. 곧이어 진행된 우수소감문 시상식에서는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누어 대상 2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3명, 입선 6명이 수상하였으며, 2명의 과학교사에게 우수지도자상을 수여하였다. 과학탐구교실에 참여한 모든 강연자들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초청강연은 장은숙 국립농업과학원 과장의 ‘4차 산업혁명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참석한 학생들과 학부모, 다른 강연자들에게 낯설지만 꼭 필요한 ‘농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 선택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강연 후 진행된 워크숍은 그동안 과학탐구교실에 참여했던 강연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에 반영하고자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박진이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미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 정한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조영주 조선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본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각각 과학탐구교실 10년 이상 참여 강연자, 5년 이상 참여 강연자, 1년 이상 참여 강연자로서 그동안 과학탐구교실에 참여하며 경험한 에피소드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플로어의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강연자의 편의를 개선하여 향후 양질의 강연을 제공하기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수소감문 시상식



과학탐구교실 워크숍 및 우수소감문 시상식



패널토론

+ 여성R&D인력 창업컨설팅 개최

일자: 2020년 1월 17일 (금)
장소: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컨벤션



개회사_임효숙 회장 초청토크_민윤정 대표 초청토크_오서빈 대표

1월 17일 금요일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컨벤션 512호에 ‘여성 R&D인력 창업컨설팅’이 개최되었다.

이번 창업컨설팅은 여성과학기술인 맞춤형 기술 창업 특화 컨설팅 운영을 통해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전 창업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개최되었다. 산업현장 리더 여성과학기술인 4명과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11명 등 23명이 참석하여 네트워킹, 초청토크, 그룹 컨설팅으로 진행되었다.

임효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창업컨설팅이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을 창업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KWSE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차세대 이공계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초청토크에서는 민윤정 KONO 대표는 창업 계기와 창업 후 어려움에 대해 강연하면서 “좋은 인재가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은 성공할

기회가 오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자신도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고 강연을 마무리 하였다.

오서빈 RADON / 퇴근 후 두 시간 대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 선정 방법, 홍보 방법, 제품 판로 개척에 대해 얘기하였다. “자신은 아직도 꿈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이레나 한국수력원자력 (주)방사선보건원 원장은 창업 계기와 홍보 방법에 대해 강연하면서 “창업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철저한 준비, 단단한 각오, 열정, 끈기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진수 한국광해관리공단 실장은 사내벤처제도, 기술사업화, 창업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소개하였다.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하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넓고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그룹 컨설팅에서는 멘토와 멘티들 간의 그룹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그룹 컨설팅은 멘토와 멘티 그룹의 심층 자문으로 진행되었다.

멘토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멘티들에게 얘기하고, 멘티들은 창업하는데 필요한 역량, 애로사항, 창업 현황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창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초청토크_이레나 원장 초청토크_이진수 실장



여성R&D인력 그룹 컨설팅



여성R&D인력 창업컨설팅

KWSE NEWS

+ 고경력·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융합워크숍 개최

일자: 2019년 12월 17일 (화) / 장소: 대전 반석동

12월 17일 화요일 대전 반석동에서 2019 고경력·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융합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오세화 초대회장, 정광화 3·4대 회장, 민병주 8대 회장, 신용현 9대 회장, 한성옥 10대 회장과 더불어 여성과학기술인 30여 명이 모인 이번 융합워크숍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과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해 2019년도에 수행한 다양한 활동을 돌아보았으며, 참석자들은 2020년도의 계획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고경력·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융합워크숍 개최

+ 2019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 개최

일자: 2019년 11월 7일 (목) / 장소: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개회사 안혜연 소장, 축사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강연 최희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11월 7일 목요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9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가 개최되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우수기관, 유공자 포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연대 교류 추진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250여 명의 산·학·연 여성과학기술인이 참석하여 시상식, 여성과학기술인 강연, 토크 콘서트 등으로 진행되었다.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이 급속한 도시화의 기술적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여성과학기술인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중장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공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이 힘을 합치는 집단지혜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는 것이며, 한국연구재단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최희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가 바꾸는 미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제·산업·사회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와 대비방안을 강연하였고, 참석자들에게 창조와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우수사례와 사례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2019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

+ 2019 KWSE 제6회 이사회(확대) 개최

일자: 2019년 11월 19일 (화) / 장소: 대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보고 안건 · 2019년 제5회 이사회 회의록 보고 / 위원회별 활동보고
· 제13대 회장선거 진행보고 / 회장단 활동내용

의결 안건 · 회장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 2019년도 중간결산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 회원인준

논의 안건 · 제3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평생)공로상 포상

기타 논의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이변경

협조 및 공지사항 · 제27회 정기총회 및 융합워크숍 개최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신규임원 도입



KWSE 제6회 이사회(확대) 개최

+ 2020 KWSE 제1회 이사회 개최

일자: 2020년 1월 22일 (수) / 장소: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보고 안건 · 2019년 제6회 이사회 회의록 보고 / 13대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 제27회 정기총회 보고 / 위원회별 활동보고 / 회장단 활동내용

의결 안건 · 2019년도 최종결산 / 회원인준 / 제13대 임원 보선
· 제13대 운영위원 선정 / 명예회장 추대 / 2020 정기이사회 개최

기타 논의 · 제2회 이사회(확대) 개최

협조 및 공지사항 · 제13대 임원 명함 제작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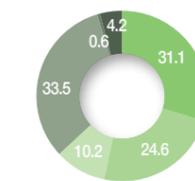


KWSE 제1회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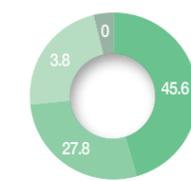
2019 KWSE 76호 소식지 설문 결과

(단위: %)

마트에서 식품이나 생활용품 구매할 때 선택을 포기 하게 만드는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재활용 쓰레기 중 가장 시급하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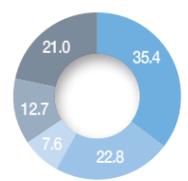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다음 문항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소식

KWSE 회원동정

MEMBERS' UPDATES

+ 수상



곽영실
한국천문연구원

2019년 우수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 (2019. 11. 7.)

참으로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초대 여성과학기술인 총괄담당관으로서 7년간 지속적인 담당관 활동을 통해 여성 채용 확대 및 지원향상에 기여를 하고, 여성협의회 창립멤버로서 여성협의회 운영 및 활동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자기진작 및 고충해결 등 여성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선배 여성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2019년 UST 우수교수상 수상
(2019. 12. 17.)

UST의 천문우주과학 캠퍼스 교원이라는 역할은 저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의 최종우려 선생 역할을 잘 따라와 준 저의 첫 박사 1호 제자는 UST 본부에서도 우수졸업생으로 상을 받았고, 다수 논문을 출판하고 학술대회에서 우수 발표상을 받았으며, 졸업 전에 이미 나고야 대학에서 박사후연수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함께 성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천문우주과학분야의 후진 양성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이대목동병원

2019년 보건의료기술 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보건복지부장관) 수상 (2019. 12. 10.)

지난 27년간 조산임신 37주전에 미숙아를 분만하는 경우와 태아프로그래밍에대한 임상적인 기전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본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하여 더 깊이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중요한 저출산 문제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은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커뮤니케이터상 수상
(2019. 11. 29.)

지난 연말 영광스럽게도 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과학커뮤니케이터상을 수상했습니다. 측정표준과학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국제단위계 기본단위 재정의' 홍보 활동으로 대국민 인식제고에 기여한 것을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출신의 홍보인으로서, 과학기술을 연구자와 국민의 사이에서 잘 연결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과학커뮤니케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영
(주)엔지캠생명과학

이노비즈 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주회
기술혁신 포상 (이노비즈협회 회장 표창) 수상 (2019. 12. 12.)

글로벌 신약개발에 중요한 First in class 신약 물질 개발을 위한 R&D에 집중하고 가능성을 제시하여 추후 Unmet Needs 시장을 선도할 기술혁신의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 R&D 인력으로서 이노비즈협회 회장 표창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약이 전세계인들이 복용하는 신약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R&D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사

- 김혜영 (주)사랑과선행 (주)사랑과선행 상무이사 이직 (2019. 10. 1.)
- 박순희 (바이오웨이브W) 한림대학교 전임교수 정년퇴직 (2019. 8. 31.)
- 손형욱 (KT&G R&D 본부 기술연구소) KT&G 임원 (상무) 승진 (2019. 9. 1.)
- 양은경 (SK바이오랜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비상임이사 선임 (2019. 10. 1.)
- 임정옥 (경북대학교) 미국 코넬대학교 초청교수 (2019. 10. 26. ~ 12. 20.)
- 장해정 (서경대학교)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직 (2019. 9. 1.)
- 장현주 (한국화학연구원) 화학플랫폼연구본부장 임명 (2019. 12. 5.)
- 추장희 (특허청) 기술서기관 승진 (2019. 9. 3.)
- 한은미 (전남대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 위촉 (2019. 12. 12. ~ 2021. 12. 11.)
- 장정혜 (충주교육대학교) 사단법인 충북여성과학기술인회 2020년 차기 회장 인준 (2019. 12. 11.)
- 김건희 (덕성여자대학교) 한국영양교육평가원장 취임 (2020. 1. 1.)
- 윤선영 ((주)엔지캠생명과학 이사 승진 (2020. 1. 1.)
- 정영란 (부산광역시) 3급 승진 (2020. 1.)

- 한미정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 글로벌 협력실장 (2020. 1. 2)
- 정영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UST 겸임교수 임용 (2020. 1. 27)
- 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소장 승진 (2020. 2. 17)
- 김두남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장 승진 (2020. 3.)
- 김영혜 (국립수산과학원)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산울산지역연합회 4대 부회장 선출 (2020. 3.)
- 김용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무처장 임명 (글로벌캠퍼스) (2020. 2. 1.)
- 김희정 (강원대학교)- 자연대학 지질지구물리학과 지질학과 조교수 임용 (2020. 3. 1.)
- 노예은 (신광화학공업(주)-) 부팀장 승진 (2020. 3.)
- 오현주 (국립수산과학원)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산울산지역연합회 4대 대의원 선출 (2020. 3.)
- 임효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 위촉 (2020. 3. 3. 13.)
- 하경자 (부산대학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 위촉 (2020. 3. 13.)
- 박영년 (연세대학교) 제22기 대한인암학회 회장 선출 (2020. 7. 1. ~2021. 6. 30)

KWSE 2020 여성과학자 (KWSE-KWiSE) Webinar



'연결'과 '지능',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와 재미한인여성과학자협회(KWiSE)가 함께 학문의 열정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 새로운 시작으로 Bio-Health 분야 여성 연구자들의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어디에 계시든,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접속하셔서 '융합'의 미래를 설계해보세요.

일시

매달 셋째주 한국 수요일(*4월만 넷째주 수요일) / 미국 셋째주 화요일
한국시간 기준(수요일) 오전 10:30 ~ 11:30 / 미국 동부기준 (화요일) 오후 8:30 ~ 9:30

온라인 참여방법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주관자에게 사전에 메일로 참여희망을 알려주세요. 참여자들에게 세미나 당일 Webinar 15분 전에 메일로 접속코드를 보내드립니다.

Cisco Webex Meeting: PC 또는 모바일 접속

날짜	연사	소속	제목	분야
01/15			첫모임 (인사 및 소개) 한국: KWSE (박진아) / KRIBB (정진영) / KOSEN (윤정선) 미국: KWiSE (김동연) / NIH (전지현) / NIH fellowships (박혜영)	
02/12	이현주	KAIST	Miniature systems for ultrasound neuromodulation	Biosensors
03/18	이지현	NIAID/NIH	Multimodal imaging at Biosafety Level 4 Lab	Biomedical imaging
04/22	손명진	KRIBB	Stem cells and liver organoids	Organoid
05/13	이혜경	JHU	Cross-modal recovery of adult brain plasticity	Neuroscience
06/17	김정애	KRIBB	Epigenetic regulators in human disease	Epigenetics
07/15	지영미	NIDCR/NIH	Small leucine-rich proteoglycans as driver of inflammation in salivary gland hypofunction	Functional Genomics
08/12	김미량	KRIBB	Epigenetic study of cancer and NAFLD(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Epigenomics
09/16	김민정	NIMH/NIH	Preclinical and first-in-human evaluations of novel radioligands for imaging COX-1 and COX-2	PET brain
10/14	이수현	KAIST	Emotional Modulation in Human Memory Encoding	Cognitive neuroscience
	신현정		Forces in cellular motions	Cell mechanics
11/18	홍소균	NHLBI/NIH	Non-invasive in vivo tracking of iPSC-derived cardiomyocytes	Stem cells
12/16			마지막 모임 (Webinar 돌아보기)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KRIBB (정진영, jjeong@kribb.re.kr)

주관기관

